

# 한국 YWCA

2018년 11월호  
November  
Vol.555

**특집 '가짜뉴스를 넘으려면'**  
가짜뉴스 해법은 진짜뉴스다  
가짜뉴스가 가짜기독교 만든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는 거짓 프레임

**기획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여성들 노력으로 '웹하드 카르텔' 실체 밝혔다  
<미스터 션사인>은 왜 상을 받지 못했는가

**이슈**  
꿈이지 않는 교회 성폭력과 '그루밍'

**청년토크**  
교회는 왜 성소수자를 혐오할까

**현장**  
울산YWCA 공동위원회를 가다



YWCA (사)한국YWCA연합회

## 2018 YWCA 성탄예배 “오래된 새길, 화해와 평화” 초대합니다

**일시** 2018년 12월 13일(목) 오전 10:30  
**장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  
**설교**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봉헌** 북한YWCA 재건지원을 위한 헌금  
**특별한 만남** 탈북민 공연

※ 문의 (02)774-9702 법인사무국  
※ 예배 후 점심식사가 준비됩니다.

YWCA 한국YWCA연합회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권선각서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 호주제 폐지와 가족법 개정운동



1984년 YWCA가 서울 명동에서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가두서명 명을 벌이고 있다.



1973년 서울YWCA 강당에서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강연회가 열렸다.

한국여성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1950년대 시작돼 2005년까지 반세기 넘게 이어진 호주제 폐지를 끝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진보를 아울러 여성계 전체가 연대해 이룬 호주제 폐지로 한국 가족법은 부모평등, 부부평등,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적인 법으로 재탄생됐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 변동을 기록하는 신분등록제로 일제강점기 때 도입됐다. 남성 우선으로 호주가 승계되어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어머니와 할머니의 호주가 되고, 집안의 가장이 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계속됐다. 대물림을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 사상을 부추겼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문화를 강화시켰다.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막는 대표적인 성차별 제도였다.

설립 초기부터 애국계몽운동, 여성인권운동을 펼쳐온 YWCA는 일찌감치 호주제 폐지와 가족법 개정운동에 뛰어 들었다. 1952년 사회문제부를 설치해 한국 최초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씨를 영입하고 축첩, 조혼, 호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법 문제를 제기하며 이듬해인 1953년부터 개정운동에 나섰다.

1973년 여성단체들과 함께 가족법개정추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세계여성의 해'인 1975년을 'YWCA 가족법 개정의 해'를 정하기도 했다. 동성동본 불혼제도 폐지, 부모의 친권 공동행사, 상속제도 합리화, 이혼여성과 사별여성의 재혼금지 조항 폐지,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 등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섰다.

YWCA는 2005년까지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강연, 토론회, 집회, 가두서명, 캠페인, 연극공연, 청원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호주제폐지시민연대, 호주제특별기획단 등에 적극 참여해 범여성계 운동으로 확대했다. 50년 넘게 지속된 노력은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결실을 거뒀다.

## 2018. 11 한국YWCA



**표지이야기**  
11월 22일(목) 한국YWCA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2018년 12월 주요일정

- 12월 5일**  
싱크머니 금융·경제교육 강사대회
- 12월 13일**  
2018 YWCA 성탄예배
- 12월 18일~19일**  
김필레리더십캠프(중학교)
- 12월 20일~21일**  
김필레리더십캠프(고등학교)

**제54권 제9호 통권 555호**  
2018년 11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김은주·백수경·이경순  
이은혜·이하나·정선경·조하나  
편집 배정미·신미희·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교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여자라서 죽는 나라 | 김은경
- 05 **말씀묵상** 곁 | 김신애

### 특집 '가짜뉴스를 넘으려면'

- 06 ① 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뉴스, 해법은 '진짜뉴스'다 | 정철운
- 08 ② 가짜뉴스가 '가짜기독교' 만든다 | 김민수
- 10 ③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는 거짓 프레임 | 김은주

### 기획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 12 ① 시상식 여성들 노력으로 '웹하드 카르텔' 실제 밝혔다 | 문윤희
- 16 ② <미스터 션사인>은 왜 상을 받지 못했는가 | 김예지

- 18 **강연** 지속가능포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 차민규
- 20 **이슈** 교회는 왜 '그루밍 성폭력'에 속수무책인가 | 이은혜
- 22 **청년토크** 교회는 왜 성소수자를 혐오할까 | 대학·청년Y
- 24 **국제** 세계YWCA·YMCA 기도주간 "젊은이야 일어나리" | 김은영
- 26 청년선언 '우리가 만드는 성평등 세상, 한반도 평화' | 임희진·차민재

- 28 **이달의 현장①** 서부지역 회원대회 | 곽수현
- 30 **이달의 현장②** 사천YWCA 창립 30주년 기념식 | 조춘복
- 32 **이달의 현장③** 싱크머니 청소년 세계지갑여행 | 이지윤
- 34 **이달의 현장④** 북·중 접경지역 평화역사 연구 | 백보람
- 36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울산YWCA 공동위원회를 가다 | 권한별
- 3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안전한 교회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재 | 김은선
- 40 **연합회 소식**
- 43 **회원YWCA 소식**

# 여자라서 죽는 나라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성평등위원장

과격한 표현들이 난무한다.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언어를 통해서도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걸러지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성을 매개로 작동하는 ‘혐오’는 서로를 찌르는 무기가 되어 고통은 가중되고 상처의 치유는 더욱 멀어진다. 급기야 죽음으로 끝을 내기도 한다.

나홀로 한명 꼴로 ‘여자’라는 이유로 죽음을 맞는 자매들이 있다. 한국 사회가 ‘페미사이드(Femicide)’ 충격에 맞닥뜨린 가운데 문제해결의 책무를 지닌 국가는 손을 놓고 있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남자들’에 의해 살해당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리라. 페미사이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여성을 향한 증오가 범행 동기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촛불을 넘어 #미투로 시작된 2018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폭력을 멈추고 평화와 건강을 선택하도록, 불편부담 없이 정의가 흐르도록, 빈곤과 차별을 넘어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여자들’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겨두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분노한 여성들이 함께 행동했다. 폭력 가해자,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남성연대, 성폭력 통념을 확산하는 언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정부와 미투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 국회가 변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하고 사회 분위기에 밀려 통과된 몇 개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 진짜 필요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1년이 넘도록 관련 부처에서 ‘논의’ 중에 머물러 있다. 법으로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 없는 법과 제도들. 다시 손봐야 하는 관련 법률이 수도 없이 쌓여만 간다. 치밀함이 결여된 법과 제도는 더 큰 장애물이 되어 여성들이 발목을 잡을 뿐이다.

우리는 보았다.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키라’고 했던 공기업 ‘남자’ 사장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보았다. 법 제정 30년 만의 쾌거(?)라고 해야 할까?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사법기관들은 수사를 시작하고, 정부에서는 관련 법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보고 싶다. 상처를 치유하고 연대와 화해를 통한 살림의 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더욱 선명하게 보고 싶다. 잡초를 뽑는 일보다 씨를 뿌리는 일이 더 중요하기에 평화와 정의의 씨를 뿌리며 더욱 분주해질 2019년 YWCA를 그려본다.

# 결



김신애  
목사·한국YWCA연합회 Y아카데미위원회 위원

## 룻기 1장 1~18절

(전략) “나더러 어머니를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도 머무르겠습니다.” (중략)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구약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는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어 모압 여자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풍족하고 평화로워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신명기 사관’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관점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집안이 망한 것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로 벌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 성폭력 문제에서도 피해자의 행실과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고, 가해자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며 쉽게 믿어버립니다. 피해자들은 상처를 추스를 새도 없이 부정적인 말들에 시달리며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스스로 마음에 생채기를 내며 살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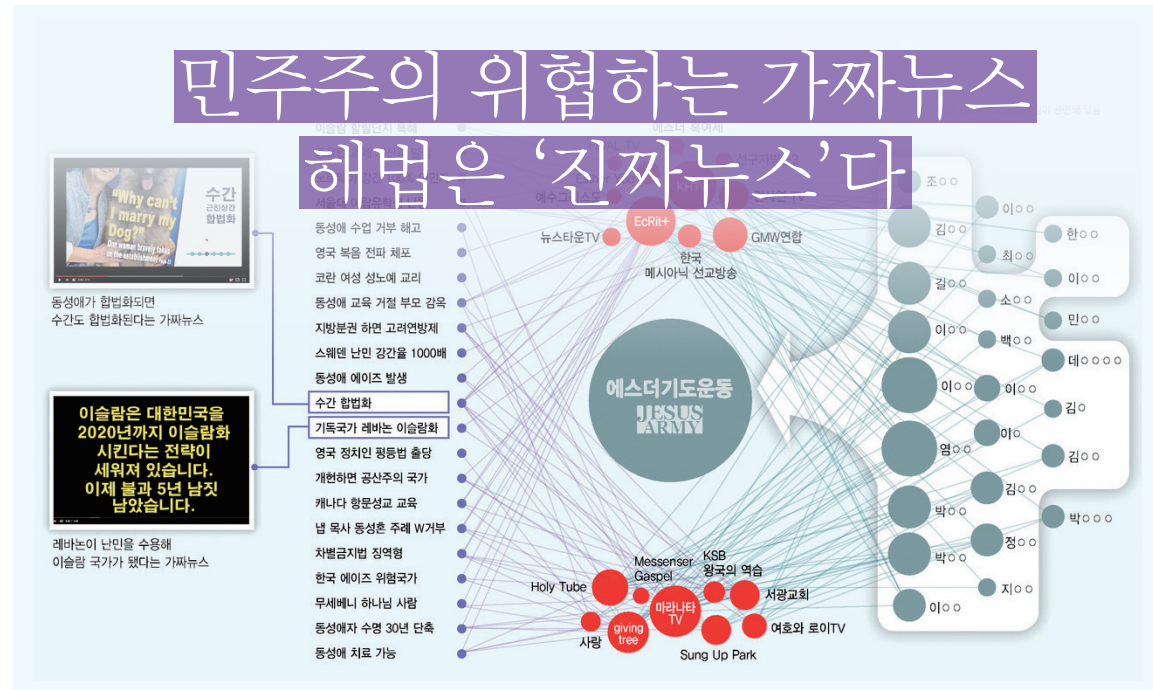
미성년자와 20대 여성, 여전도사에 대한 성폭력뿐 아니라 금권선거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에 고발됐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구

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증거효력이 뭍에도 전형적인 ‘가해자 편들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목사는 승승장구 하였고 결국 감독으로 당선됐습니다. 감리교여성연대는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며 이·취임식이 예정된 행정총회에 참석해 피켓시위로 반대활동을 펼쳤고, 취임식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풍년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마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서 친정으로 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실랑이 끝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울며 떠났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곁에 있고자 했습니다.

룻기는 절망에 빠진 여인 나오미의 ‘결’을 지켰던 룻의 용기를 가르쳐줍니다. 룻으로 인해 나오미는 고통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고 훗날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사회적 지위까지 되찾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서로의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룻의 이름은 친구, 이웃을 의미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곁을 지켰던 것처럼 YWCA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서로의 곁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짜뉴스 연결망을 분석한 한겨레 9월 27일자 기사

정철은  
미디어오늘 기자

언론은 가짜뉴스에서 자유로울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은 11월 16일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두고 “숙명여고 쌍둥이 딸 아빠가 얼마 전 사퇴한 김 전 사회부총리 딸의 담임교사로 김 전 부총리의 딸이 명문 사립대 치과대학에 합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였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의혹 제기 두 시간도 안 돼 “SNS상 의혹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제1야당이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인지 단 한 번의 검증도 없이 가짜뉴스를 이용해 선동에 나선 사례다.

허위정보의 무질서는 언론에도 넘쳐난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류콘텐츠 제재가 관심사였던 2016년 9월 4일, <서울경제>와 <노컷뉴스>, <매일경제> 등은 중국 언론을 총괄하는 광전총국이 9월 1일부터 한국 연

예인의 TV출연과 오락프로그램 방영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CCTV 뉴스화면 캡처 이미지였으나 누리꾼이 조작한 이미지였다.

해당일자에 방영된 CCTV 뉴스에는 관련 보도가 없었고 앵커 역시 다른 인물이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환구시보>는 물론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한 번만 확인했더라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가짜뉴스였다. 앞선 김상곤 전 부총리 사례에서도 언론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발언을 받아쓰고, 김용태 사무총장 측에서 나온 발언을 받아쓸 뿐이었다.

우리 언론은 가짜뉴스 문제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 가짜뉴스가 한국에서 확산된 데는 기성언론의 책임도 있다. “너희들은 가짜뉴스 안 쓰냐”고 했을 때 언론신뢰도가 낮은 한국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언론사가 몇이나 될까. 독재와 분단을 경험해온 한국에선 이미 ‘왜곡보도’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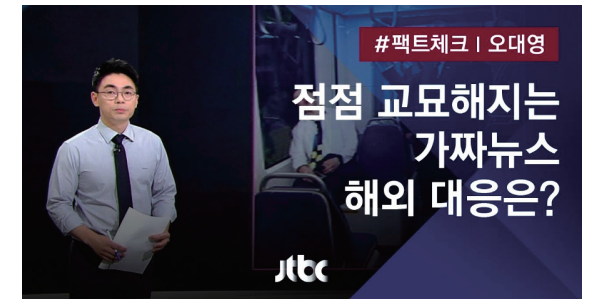
<한국경제>는 8월 24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언론이 한 사람의 죽음과 최저임금 이슈를 무리하게 연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하루도 안 돼 삭제됐다.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를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이 노동취약 계층의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다.

게으르면 속는다

가짜뉴스는 기성언론에 대한 냉소, 불신, 무력감을 양분 삼아 성장하고 있다. 유튜브를 이용한 뉴스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 ‘문재인 건강이상설’, ‘노무현 타살설’ 같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인기영상에 오르며 비상식적인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한국의 극우보수 성향 유튜브 상위 17개 채널은 구독자만 200만명을 넘었다. 가짜뉴스는 정치적 선동과 더불어 상업적 목적이 결합돼 진화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촛불혁명으로 패퇴한 극우가 살아나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유튜브, 네이버 같은 플랫폼의 목적은 이윤창출을 위한 ‘더 많은 클릭’이다. 뉴스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기사를 예측해 메인뉴스 편집을 하는 알고리즘까지 등장했다. 이는 확증편향(필터버블)을 일으키는 위험성을 갖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보고 싶었던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 앞에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로 가짜와 진짜를 가려낼 수 있을까.

지난해 발표된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온라인 뉴스를 생각할 때 인터넷에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우려스럽다”는 진술에 세계 37개국 뉴스이용자 54%가 ‘그렇다’고 답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두려움은 세계적 현상이다. 어느 때보다 저널리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가짜뉴스



언론 본연의 역할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스가 품은 혐오와 갈등을 걷어내야 한다. 저널리즘은 진짜뉴스의 진지를 구축하며 기성언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가운데 유튜브, 페이스북 등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플랫폼을 압박하며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뉴스와 뉴스가 아닌 것이 뒤섞여 소비되는 시대의 독자들은 여전히 진짜뉴스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가짜뉴스의 본질적인 퇴치법은 표현물에 대한 규제강화도 언론법제 개선도 아니다. 진짜뉴스이고, 저널리즘의 회복이다.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가 곧 저널리즘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는 극복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017년 11월 27일 한 여성이 제보한 로이 무어 앨러배마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의 성추문이 허위이며 제보자가 언론을 타깃으로 하는 보수단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단체가 주류 미디어와 진보성향 단체를 타깃으로 그들이 편향됐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가짜 이야기와 영상 등으로 함정을 만드는 곳”이라고 밝힌 것이다. 허위 제보의 단서를 찾은 것은 <워싱턴포스트> 취재진의 팩트체크와 엄밀한 배경 조사였다.

저널리즘이 진짜뉴스의 진지를 구축할 때 뉴스이용자는 가짜뉴스에 맞서 오늘보다 부지런해져야 한다.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누가, 왜 속아 넘어가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행동과학자 데이비드 랜드는 이를 ‘정신적 게으름’으로 표현한다. 게으르면 속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 앞에서 열심히 생각해야 한다. 뉴스이용자들의 몫이다.



11월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총궐기'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앤조이)

김민수  
한남교회 목사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서 어떤 죄가 더 나쁠까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쁩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동이 옳다고 확신하는데 회개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런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은 ‘광신’과 통하는 말인데 그들이 ‘맹신’하는 것은 물론 ‘가짜뉴스’이며, 그들의 행동은 가히 ‘광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짜뉴스의 근원지로 지목된 단체는 이름만 들어도 기독교단체임을 떠올리게 되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입니다. 게다가 거리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기, 십자가를 들고 혐오적인 구호를 외치는 이들 역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하나는, 세월호 유족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할 때 길 건너편에서 목사를 자처하는 이가 한 손에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한 손에는 확성기를 들고 세월호 유족을 조롱하고 있었습

니다. 다른 하나는,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양손에 들고 국민에게 탄핵받은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던 중년의 한 여성이 미국 대사관 앞을 지나가면서 온 힘을 다해 “I love USA!”를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두 장면을 떠올리면 확신에 찬 듯한 광기 어린 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확신범’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사람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름 아닌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를 맹신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에도 관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냉소와 대중과의 괴리는 그들끼리 굳건하게 결속하게 했고, 그들의 주장이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띄게 됐습니다. 요즘은 옳고 그름을 떠나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곧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착시현상에 빠져 든 듯 싶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

더 심각한 것은 소위 ‘진보적인 단체’가 하는 일을 무

조건 반대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해내는 이들이 맞서 싸우기 버거운 현재 권력보다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에 대응하는 게 수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진보단체의 각종 행사에 나타나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상황을 조장하고는 그것을 빌미로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가짜뉴스의 단골 소재는 성소수자, 난민, 병역거부 문제, 남북관계 등입니다. 이런 이슈가 성서를 취사선택해 공격하기 편리하고, 자기편의 맹신을 굳건히 하면서 보수기독교단체와 교회, 교인들을 끌어들이는데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1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총궐기’ 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들은 목사임에도 1970년대 반공 웅변대회를 방불케 하는 발언뿐 아니라 반성서적인 혐오 발언과 성소수자를 향한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라는 한 인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빛내준 기독교인들과 이번 대회를 이끌어준 전광훈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노에 먹이를 주는 방식으로 ‘혐오라는 짐승’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왜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약자를 혐오하는 것과 이전에 그랬듯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힘을 결집하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는 20대와 노년세대가 가짜뉴스에 편승하면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빙자해 욱되게 하는 이들**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근원지는 ‘에스더기도운동’이며 그들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확산하는 이들을 ‘인터넷 선교사’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에스더, 기도, 선교사는 모두 기독교 용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수집회를 주도하고 설교하면서 ‘사형’ 운운하고 온갖 혐



‘한국교회수호결사대가 10월 23일 가짜뉴스 문제를 제기한 기독교 인터넷신문 <뉴스앤조이>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앤조이)

오 발언을 하던 목사들의 교회 이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니, 이들은 기독교를 빙자해서 기독교를 욱되게 하는 이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성서에 나오는 단어를 빌렸을 뿐, 반기독교적이며 반성서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고, 목사라는 직함도 갖고 있으며, 한패거리 연사들도 그들을 기독교인이라 부르니 ‘기독교’가 마치 그들과 한통속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교회 세습이나 하는 대형교회와 반공설교나 하는 목사, 검증되지도 않은 교회들을 끌어들이어 연합단체를 만들고 기독교계에 영향을 끼치려는 이들, ‘태극기 집회’에 십자가를 들고 참석하는 이들, 성직자 권위를 이용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는 목사, 종말 운운하며 교인 재산을 갈취하는 이들, 그리고 생각 없이 그들을 따르는 맹신자들을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요, 그리하여 ‘회개할 기회’조차도 상실한 불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회개할 길을 열어주소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등이 2017년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성평등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장

### 성평등운동 대신 양성평등운동 하겠다는 사람들

한날 시위대 구호에 불과했던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가 여성운동, 특히 기독교여성운동 진영에서는 여성 정책 전반을 규정하는 프레임(frame)으로 작동하면서 균열과 갈등을 낳고 있다. 이 프레임에 따라 일부 단체는 성평등운동 대신 양성평등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런 주장은 타당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구호 안에 있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어떤 의미로 정의되었는지, 그 의미는 기존 여성운동 정의와 무엇이 다른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그래야 그 프레임의 메시지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실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마다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의 틀이 바로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정립한 개념으로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

되는 사고의 체계’이다. 프레임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 대한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프레임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된다. 우리 사고가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프레임 밖에 있는 사실들은 무시된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구호에는 두 가지 인식이 내재돼 있다. 하나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다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양성평등이 성평등보다 더 좋은 것, 나아가 더 도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다는 근거를 섹스(sex)와 젠더(gender)의 차이에서 찾았다. 즉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性, sex), 즉 남성과 여성 사이 평등을 의미하며 이성간 성관계와 이성간 결혼을 옹호하는 장치로 정당화하였다. 반면 성평등은 사회적 성(性)으로 다양한 성(gender)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며, 모든 종류의 성관계(동성애, 근친상간 포함)와 모든 형태의 결합(동성혼 포함)을 보호하는 기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들, ‘동성애·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등과 같은 그들에 의해서 성평등은 성소수자의 권리 인정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양성평등은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제도와 성규범을 지지하는 개념으로 재정의되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 성평등에 비해 도덕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애가 선(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은 동성애 반대와 동성결혼 반대를 위한 도덕적 규범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양성평등은 이제 성소수자의 차별을 내포하는 차별적 언어로 변질되었고, 평등의 의미는 형해화되었다.

### 여성운동은 ‘차별 NO, 평등 YES’에 앞장서야

놀랍게도 동일한 단어와 개념이 그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페미니즘의 ‘평등의 언어’가 그들의 ‘차별의 언어’로 전치되었다. 페미니즘에서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구분한 것은 차별이 없는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sex)가 어떻게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권력관계를 가진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으로 전환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성차별과 성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으로 사용되었다. 즉 섹스와 젠더의 구분은 차이가 차별로 구조화된 현상과 원인, 그리고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그들에게 섹스와 젠더의 구분은 생물학적 성에 따른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감별기와 같다. 그들은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은 정상적이며 도덕적인 양성평등주의자이고, 그 반대의 경우 즉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은 비정상적이며 비도덕적인 성평등주의자로 분류하였다. 사회적인 성인 젠더의 핵심은 성 역할과 성별 권력관계, 즉 위계화된 성별 질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그런데 그들의 젠더에 대한 이해 속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무시 혹은 삭제된 채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만을 사회적 성인 젠더로 기형화시켰다.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성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구조 개혁을 도모한 젠더의 변혁적 문제의식은 사라졌다.

젠더가 등장하기 이전에 여성문제의 원인은 여성 자신이었다. 여성은 능력이 없어서 혹은 의지가 없어서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석됐다. 수십 년에 걸쳐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역설적 상황에 대한 해법이 바로 젠더이다. 여성문제의 원인은 여성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권력의 불평등에 있으며,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배양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권력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젠더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에 따라 양성평등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평등운동을 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타당한가? 나의 대답은 “타당하지 않다”이기에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삭제한 평등 프레임은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 여기에서 평등은 또 다른 차별을 은폐하기 위한 가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에 저항하고 평등을 촉진하는 ‘차별 NO, 평등 YES’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성별에 의한 차별과 불평등을 개혁하기 위한 변혁적 개념인 젠더를 차용하여 ‘양성평등은 이성애, 성평등은 동성애’ ‘양성평등은 정상, 성평등은 비정상’ ‘양성평등은 선, 성평등은 악’으로 오독하는 것은 페미니즘 지성사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적인 계층과 민낯을 드러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참석자들이 수상자들의 수상을 축하하고 있다.

문윤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이 11월 22일(목)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1996년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청자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방송제작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취지로 마련된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은 그동안 정의, 평화, 생명의 정신을 잘 표현한 140편의 방송프로그램을 선정했다.

김주우 S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은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좋은 TV 프로그램상 소개 영상, 경과 및 심사보고, 시상으로 마무리됐다. 한영수 회장은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은 작은 격려이지만 매년 시상식에서 전해주는 방송인들의 소감은 큰 감동과 희망으로 다가온다”며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이루고자 애쓰는 방송인들을 응원했다.

연합회 제2부회장인 이종임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구조와 젠더위계, 여성혐오와 성폭력·디지털성범죄 등에 관심을 갖고 그 뿌리를 추적하려는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1차심사에서 선정된 15편 중 최종 수상

작 6편이 결정됐다.

성평등 부문상은 KTX 해고승무원들의 13년간 복직투쟁을 여성의 눈으로 재조명한 KBS <거리의 만찬> ‘그녀들은 용감했다’, 생명 부문상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심층 취재한 KBS <KBS 스페셜> ‘플라스틱 지구’, 평화 부문상은 생생한 평양 현지 풍경과 남북 음식문화 조명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 JTBC 다큐멘터리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 특별상은 최악의 환경재앙으로 기록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복원노력과 앞으로 과제를 짚은 대전MBC 특별기획 <검은 재앙 10년, 절망에서 건진 희망>이 받았다. 전국 3천여 명의 YWCA 활동가들이 온라인투표로 선정한 ‘전국 YWCA 활동가들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은 인문학 예능의 새 장을 연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3>이 수상했다. 대상은 디지털성범죄 산업의 온상인 웹하드 카르텔 실체를 파헤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이 받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팀은 웹하드 불법동영상 피해자 구제에 힘쓰고 있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상금의 절반을 기탁했다.

수상소감

대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김병길 PD “여성들에게 피해준 주범 잡혀서 다행”



“처음 제보를 받고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취재였고, 양진호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한 채 마무리했습니다. 역주행이라고 하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퍼즐

이 맞춰지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론 저 모습까지 담았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고통받는 여성들의 가해 주범이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은 YWCA를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보해주신 여성단체 회원분들, 취재과정에 도움을 준 많은 분들, 국민청원과 기자회견 등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 덕분입니다. 그런 여성활동가들의 수고가 담긴 상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웹하드 카르텔 2부도 방송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재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여성대상 범죄피해를 줄이는데 일조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 부문상 KBS <거리의 만찬>  
‘그녀들은 용감했다’

박상욱 PD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여성 사회자 3명이 사회적으로 소외됐거나 쉽게 지나쳐버린 이슈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을 받은 부분은 파일럿 3편 중 첫 번째 방송인 KTX 해고승무원 이야기입니다.



다. 프로그램을 만들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경청의 힘’이었습니다. 사회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목격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은 승무원분들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사프로그램들은 중년 남성들의 학구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여성 사회자들이 여성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이슈를 다르게 보자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이슈와 이야기가 있는 현장에 발로 뛰며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소감

생명 부문상 KBS <KBS스페셜>  
'플라스틱 지구'

송웅달PD "단기간 관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되지 않아"



"큰 공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잊고자께 제가 사는 아파트의 재활용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과 같이 플라스틱들이 산더미처럼 아파트 단지 앞마당에 있었습니다. 방금도 시상식에

오면서 잠깐 검색을 했더니, 인도네시아 앞 바다에서 잡힌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 컵만 100여개가 넘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에서 하루 동안 생산되는 플라스틱 컵들은 100만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 문제는 짧은 시간 내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이 많습니다. 큰 격려에 감사하며 용기를 얻어서 2019년에도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한 후속방송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 부문상 JTBC 특집다큐멘터리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

박동일 PD "남북이 함께 만들어 평화를 배웠다"

"이렇게 크고 의미 있는 상을 주신 YWCA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북측 출연진과 촬영감독을 비롯해 북한측 인사들과 함께 공동제작한 작품입니다. 제작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방송



문법이 달라서 우리가 하는 말을 북측에서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고, 촬영 내내 장비나 기술 부분에서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진행하고 제작해가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송 후반에는 완전히 하나의 민족이었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남북간에 교류가 활발해지며 평화가 이뤄지는 과정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그램을 위해 고생해준 제작진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수상소감

특별상 대전MBC 특별기획  
<검은 재앙 10년, 절망에서 건진 희망>

최기용 기자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를 고민했다"



"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프린트 기름유출사고 당시 사건 기자였습니다. 검은 기름이 온 해안을 뒤덮은 현장을 보며 태안은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절망뿐이었는데 6개월 만에 기적처럼 만리포 해안을 재개장

할 수 있던 것은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바다와 갯벌을 닦아냈기에 가능했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태안을 찾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은 없었지만 후유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휘발된 기름으로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했고, 주민들의 유전자 변형현상도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보상문제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잊혀진 재앙입니다. 주민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가장 슬프고 두렵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의 보상금도 올해 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역방송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마음 속에 태안이 청정해역으로 복원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YWCA 활동가들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3>

양정우 PD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여형 예능을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란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만들다 보니 다루는 사안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큐멘터리나 시사보도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 참



으로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이 기획대로 가기보다 잡다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니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YWCA 활동가들이 주는 상을 받으니 '그래도 많이 틀린 길로 가지 않았구나' 하는 용기를 얻습니다. 출연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서도 재밌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상의 의미를 곱씹으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으로 남성 주인공은 배우 이병헌씨가(왼쪽) 맡았다.

김예지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기획국장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심사위원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심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고심이 많았다. 109편에 달하는 추천작품과 우수작품 증가로 마지막까지 숙고했다. '전국 YWCA 활동가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선정을 두고는 뜨거운 논쟁도 벌어졌다. tvN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대표적이다. 여성을 역사적 주체로 그려냈다는 호평에도 성희롱과 불륜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성 주인공 캐스팅의 적절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미스터 선샤인>은 왜 상을 받지 못했을까. 청년대표 김예지 심사위원의 후기를 실는다.

### 2030세대는 불매운동까지 했다

'홍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김은숙 작가와 '믿고 보는 천만 배우'로 지칭되는 이병헌의 만남으로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미스터 선샤인>. 수도권 시청률 20%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남성들의 이야기만 그리던 기존 역사 드라마와 달리 여성 인물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미스터 선샤인>은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의 '전국 YWCA 활동가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에서 상위추천을 받았다.

YWCA 청년대표로 심사위원을 맡았던 나는 <미스터 선샤인>을 수상작 후보로 올리는 것에 끝까지 반대했다. 드라마에서 남성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을 맡은 배우 이병헌은 2014년 불륜 의혹과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이씨는 술자리에 함께한 2명의 여성에게 "첫 경험이 언제냐", "남자 볼 때 어디를 보면 가장 흥분되느냐" "나는 여자 가슴보다 엉덩이를 좋아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경찰은 "성적 접촉이나 지나친 성희롱은 없었고 가벼

운 수준의 음담패설"로 일축했지만, 이씨의 언행은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당시 동석했던 여성은 이씨의 성희롱 발언이 담긴 동영상 갖고 협박한 혐의로 6개월 구금되었으며, 가수 생활을 접고 '이병헌 협박녀'란 꼬리표를 평생 달게 됐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에게 "유명인이고 유부남임에도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노는 과정에서 게임 등을 이유로 스킨십을 했으며 이후에도 만남을 추구했다"면서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엄히 꾸짖었다.

이씨는 충분한 사과나 자숙 없이 일시적으로 공개활동을 자제하다가 다시 복귀했다. 이씨가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남게 되면서 대중들의 공분은 커졌다. 여성들은 이씨가 출연한 광고조차 보기 싫다며 광고불매운동을 벌였고, SNS에서는 그가 출연한 작품을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 잇따랐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젊은 여성들의 비판이 거셌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도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성폭력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씨에게서 그대로 재현되자 크게 분노한 것이다. 대중들의 관심과 지지로 성장한 인기연예인이기에 이씨의 무책임한 모습은 더 큰 실망을 불러왔다.

청년여성으로서 나도 이씨의 사건내용과 처리결과에 분노했다. 그리고 이씨가 출연한 작품을 소비하는 것은 그에게 복귀 기회를 줌으로써 수많은 성범죄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작품평가와 별개로 이병헌씨가 주연배우로 출연한 <미스터 선샤인>에 여성단체인 YWCA가 주관하는 상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이다. 사회적 물의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반성이나 책임을 지기는 커녕 대중인기에 편승해 빠져나가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도록 '훈장'을 달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시청자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사례는 배우 이병헌뿐만이 아니다. 최근 성폭행, 성폭력 혐의로 피소당한 남성 연예인들의 반성 없는 조기복귀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들에게는 공통된 법칙이 있다. 여성이 남성 연예인을 성범죄로 고소·고발하면, 남성 연예인은 합의된 관계였거나 무고와 공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판에서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낸 뒤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연예계로 조기복귀한다.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으로 복귀해 2017년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부문 남자우수상까지 받은 박시후씨도 그랬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상식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위드유' 홍보대사인 배우 정려원도 성범죄를 다룬 드라마 <마



성폭력 등 성범죄 연예인 복귀를 반대하는 운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녀의 법정>으로 상을 받았다. 정씨는 "(성범죄가) 감기처럼 만연해 퍼져 있지만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들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인데 드라마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미스터 선샤인>은 영웅과 악역, 조력자마저 남성으로 설정해 '남탕'이 된 대다수 역사 영화·드라마와 달리 여성 주인공의 주체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그렇기에 상을 주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여성중심 서사 작품이 성범죄 혐의를 받은 남성 배우에게 자리를 내줄 수는 없지 않은가. 여성 배우는 SNS에 '페미니즘'만 언급해도 사과문을 올려야 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되면 매장되다시피 하는데 성범죄 가해자 남성들에게는 '영예의 수상'을 쉽게 내어줘도 괜찮은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 특히 성범죄를 일으킨 남성 연예인의 반성 없는 복귀가 계속 반복되는 데는 캐스팅하는 PD, 작가, 방송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연기만 잘하면, 시청률만 좋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끊임없이 범죄 가해자를 소비하는 시청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성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는 더욱 만연해질 것이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어렵다. 그래서 20대 여성인 나는 <미스터 선샤인>에 상을 줄 수 없었다. 미투운동을 지지하며 성폭력 근절을 외쳐온 YWCA가 좋은 TV프로그램을 뽑을 때 성인지, 성평등 관점이 필요한 이유다. YWCA



YWCA 지속가능포럼 참가자들이 권원태 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차민규**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동부지역 대표  
거제YWCA 회원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회가 급변하는 시대 다양한 현안을 학습하기 위해 5월부터 시작한 YWCA 지속가능포럼의 네 번째 모임이 11월 1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전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인 권원태 박사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의를 요약해 실는다.

**인류문명은 지구 '퇴보'를 가져왔다**

1만년 동안 인류문명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했다. 최근 150~200년 사이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그런데 지구 입장에서 '발전'이 아닌 '퇴보'였다. 인류문명 변화의 결과가 온실가스 증가, 생물종 멸종, 지구온난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구가 새로운 시대를 맞는 현상을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한다.

인류세는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침범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지질학적 시기를 말한다. 기후 온난화에서 문제는 속도다. 과거 1만년 사이에 몇 도씩 변해온 기온이 최근 100년 사이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강한 태풍과 잦은 가뭄 등을 극한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극한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날씨와 기후변화를 간단하게 사람에 빗대어 설명하면 '날씨변화'는 사람의 '기분변화'이며, '기후변화'는 '성격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분이 변하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지만, 성격이 변해버리면 알아차리기 힘들다. 현재 기후변화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의 1980년대는 길에 물을 뿌려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실외 스케이트장을 보기 힘들다.

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찰과 측정이다. 관측이라고도 한다. 관찰하고 정량화해 숫자로 표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데이터가 많아지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보통 과학자는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그런데 기후학자는 지구가 하나뿐이기에 실험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료를 얻는다.

기후변화는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정보를 통해 분석된다. 그렇기에 명확한 데

이터가 필요하다. 사람이 느끼는 '더웠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워야 더웠다고 표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적 자료를 통해 재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등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것이 과학의 목적이다.

**기후문제 해결은 시민들에 달렸다**

기후변화는 과학영역만이 아닌 사회경제 영역에서도 이야기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은 '인구수 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인구수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는 온실가스, 에어로졸(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과 미세먼지 발생량을 증가시켰다. 이런 것은 공기 중에 계속 쌓여 온실효과를 만들어내 기후 온난화를 발생시켰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후변화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폭염으로 많은 수의 가축과 물고기가 한꺼번에 폐사했다. 실제 기후변화는 물순환 변화, 식량 생산량 감소, 생태계와 생물종 멸종, 해수면 증가, 아열대 전염병 발생과 폭염 피해 증가 등 수많은 문제를 낳는다. 실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는 홍수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파괴, 폭염 관련 사망, 가뭄으로 인한 물·식량 부족 등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많은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식량 불균형으로 세계에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차민규 동부지역 대표(왼쪽부터)와 운영위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평균기온은 약 12.6°C였고, 강수량은 1,200mm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기온이 상승했고 강수량도 많아졌다. 특히 높은 강수량은 여름에 집중되고 있는데 나머지 계절엔 가뭄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은 100년 사이에 2.4°C 상승했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평균 상승도보다 높은 이유는 도시화 때문이다.

앞으로 몇 도까지 상승할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100년 사이 5~6°C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강수량이 현재보다 더 높아지면 남해안 지역에 나타나는 아열대 기후가 한반도 전체로 확대돼 7~8월에 나타나는 폭염이 5~9월까지 지속될 것이다. 최고기온은 45°C까지 올라가고, 당연히 겨울은 줄어든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적, 인위적 원인이 있다. 자연적 원인을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인위적 원인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기후변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규명이다. 현재 기후시스템에서 관측된 온난화는 명백한 사실이다.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온실효과가 계속되어 인류에게 끼칠 영향은 확실하다.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구심점을 만들어주고, 조직화하고, 참여하게 해주는 역할은 시민영역에서 해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권원태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해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성정의실현을위한연대'가 8월 2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성폭력 없는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앤조이)

이은혜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위원  
뉴스앤조이 기자

### 목회자들의 '영적 길들이기' 수법

또 하나의 교회 성폭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혼인 목사가 자신이 시무하던 청년부 여성청년 여러 명을 속여 그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는 네 명이었습니다. 피해자 조력그룹은 계속해서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고, 그 규모가 20명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김아무개씨(지난 5월 <뉴스앤조이> 보도 이후 그가 속한 노회는 김목사를 제명함)는 피해자들에게 자상한 아버지처럼 다가갔습니다. 가정에서 불화를 겪고 있던 피해자들은 다정하게 고민을 들어 주고 상담해 주는 목회자를 신뢰했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든 탈피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고, 목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교회 성폭력의 대부분은 이렇게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운 어감 때

문에 교회와 성폭력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폭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폭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우발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할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취재로 만난 교회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교회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피해자를 만나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가하는 방식을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루밍'(grooming)은 영어단어 groom에서 파생했습니다. 영어사전에 검색하면 '특별한 목적이나 행동을 위해 누군가를 준비시키거나 교육함'이라는 뜻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성범죄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고른 뒤 그의 환심을 살 행동으로 신뢰를 얻고, 성폭력을 가한 후 피해자를 통제하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

속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성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는 그루밍 성폭력이 발생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영적 길들이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담임목사는 교인의 영적 생활을 책임진다고 해 영적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목사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고, 교인들은 목사를 존경하며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합니다. 신앙심이 깊을수록 목사의 말을 신뢰하고, 나아가서는 목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말에 이미 잘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가 존재하고,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 때문에 목사가 성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아는 가해자는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으로 시작해 점점 수위를 높여 갑니다.

### 교회 성폭력, 신고할 곳조차 없다

그루밍 성폭력의 더 큰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후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폭로로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목사의 말을 듣고 침묵하는 길을 택합니다. 가족이 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 교회에 신앙생활의 뿌리를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그 모든 관계를 깨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조용히 교회를 떠난 경우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 피해자가 문제를 말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어디에 알려야 할까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폭력 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인 나머지 제대로 된 신고기관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알려도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거나 억압했습니다. 목사의 행동을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목회자를 처벌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각 교단이 제정한 교단 법에는 성폭력 목



'교회내성폭력OUT공동행동'이 2017년 9월 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앞에서 성폭력 목사 면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앤조이)

회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조차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알린다 한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교단 내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폭력에 취약한 구조라고 해서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한 몇몇 교단은 최근 목회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성폭력은 어느 한 집단만 변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내 교회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교인들도 교회 성폭력에 대한 사전지식을 겸비하고 예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공동체가 함께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복해서 받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성폭력 예방교육만 받는다고 교회 성폭력이 사라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은 왜곡된 성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교회 구성원이 서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성평등 감수성을 전체가 향상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각 지체라고 하지요. 그동안 우리는 이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지체가 소리 없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YWCA 청년회원 4명이 11월 15일(목) '성소수자'를 주제로 온라인 토크를 벌였다. 청년들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속내를 듣기 위해 참가자 이름은 별명으로 신는다.

**내가족만 아니면 된다?**

**빨강** ▶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는 아는데 성소수자는 뭘 말하는 걸까?

**파랑** ▶ LGBT는 알아?

**초록** ▶ 처음 들어봐.

**파랑** ▶ 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야.

**보라** ▶ 요즘엔 LGBTAIQ를 더 많이 사용해. 무성애자(Asexual), 간성(Intersex),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Questioner)을 포함했어.

**초록** ▶ 생각보다 많구나.

**빨강** ▶ 성소수자 하면 무지개가 생각나는데 무슨 의미야?

**파랑** ▶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자는 의미야. 분홍색은 성 정체성, 빨간색은 생명, 주황색은 치유, 노란색은 태양, 초록색은 자연, 파란색은 예술, 남색은 조화, 보라색은 영혼을 표현해.

**초록** ▶ 동성애 때문에 직장, 교회에 가지 못하는 차별은 반대해. 그렇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야.

**보라** ▶ 무슨 논리야? 왜 네 기준에 맞춰서 인정받아야 해?

**초록** ▶ 동성애에 큰 관심이 없단 거지. 자기네들 인생이잖아. 내 친구, 가족만 아니면 돼.

**보라** ▶ 주변에 동성애자는 분명히 있어.

**파랑** ▶ 맞아. 네 태도는 존중이 아니라 네 잣대로 평가하는 거잖아.

**빨강** ▶ 하지만 동성애가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

**보라** ▶ 너가 '이성애자'라고 확신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파랑** ▶ 정상적인 기준은 누가 만든 건데? 옛날엔 가난한 사람, 장애인도 비정상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

**빨강** ▶ 그거랑은 다르지. 성소수자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잖아. 퀴어축제에서 옷을 벗기도 하고...

**보라** ▶ 직접 가봤어?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야.

**파랑** ▶ 미국 최악의 '게이클럽 총기난사' 사건 기억나? 작은 차별이 모여서 혐오가 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보라** ▶ 맞아. 성소수자는 수명이 짧다고 반대하는데 자

살률이 높기 때문이야.

**교회 앞 '동성애 출입금지'**

**파랑** ▶ 성서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이지.

**보라** ▶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창세기)나 성결법전(레위기), 바울서신(로마서)을 예로 들지.

**파랑** ▶ 성서엔 시대 상황과 인간의 주관, 편견이 들어 있어서 감안하고 봐야 돼.

**초록** ▶ 게이는 항문성교를 하잖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레위기에도 죄라고 하고.

**보라** ▶ 이성애자도 하는 행위야. 이걸 동성애자만의 성도착증이라고 하는 게 이해 안 돼.

**빨강** ▶ 그렇네. 물론 항문성교를 하는 게이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일반화한 것 같아.

**초록** ▶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시니 당연하게 생각했어.

**보라** ▶ 나도 중학생 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서 가수 레이디 가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싸우고 그랬어. 공부를 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지만.

**초록** ▶ 교회 앞에 붙여 놓은 '동성애 출입금지'를 볼 때마다 찝찝하긴 했어.

**파랑** ▶ 우리 한 명의 변화가 기독교 전체를 바꾸긴 힘들지만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보라** ▶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다고 했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성소수자들을 외면하셨을까?

**파랑** ▶ 분명 그들과 함께하실 거야. 혐오와 차별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이야말로 우리 이웃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그들을 먼저 보듬어줘야 돼.

**숨게 만드는 사회**

**빨강** ▶ 왜 내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한 명도 없을까?

**파랑** ▶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나도 주변에 성소수자가족이나 친구가 없어. 분명 주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말 못하고 있는 거겠지?

**보라** ▶ 어디에나 있어. YWCA에도 분명 있을 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회가 숨게 만들었잖아.

**초록** ▶ 친한 친구나 가족이 커밍아웃 하면 어떨거 같아?

**빨강** ▶ 당황스러울 것 같아.

**초록** ▶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내가 불편해하는 걸 상대방도 느낄 것 같아.

**파랑** ▶ 놀랄 수 있지. 근데 말을 꺼내기까지 엄청 고민했을 거야. 너한테 커밍아웃을 했다는 건 그만큼 널 믿고 의지한다는 거겠지.

**보라** ▶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말하면서 안아주는게 가장 큰 힘이 될 거야.

**파랑** ▶ 성소수자를 만나본 적 없다면,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이 성소수자일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봐.

**보라** ▶ 당연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커밍아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만약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남자 친구 있니?”란 질문을 레즈비언 친구가 들었다면 어떻게 느끼겠어?

**빨강** ▶ 듣고 보니 일상생활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질문이 많네.


**파랑** ▶ 일상에서 당연하게 했던 말을 항상 주의해야 돼.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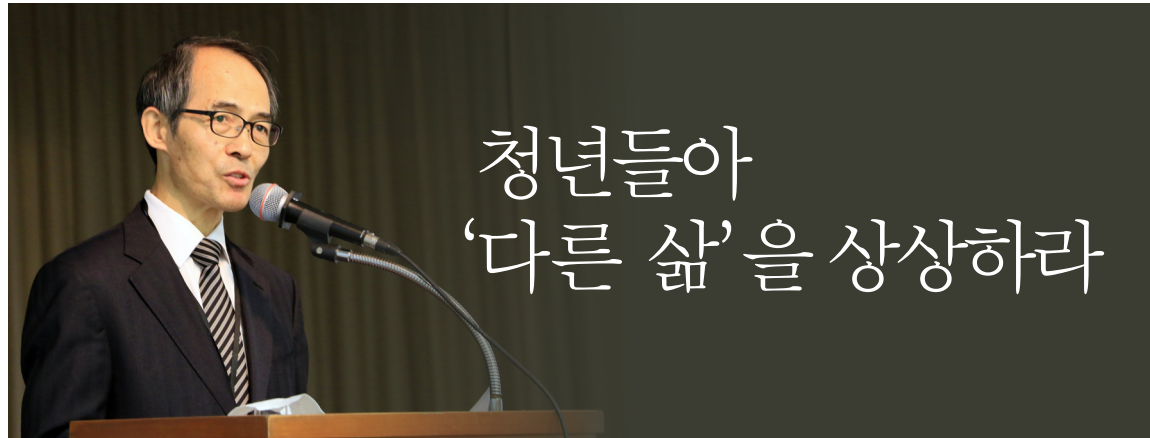
**보라** ▶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뺏아서 편리함을 누리고 있어.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더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

**초록** ▶ 너희랑 이야기를 하면서 성소수자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

**보라** ▶ 알면 알수록 그들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 거야. 얼마 전 세계 최초로 스코틀랜드가 공립학교들에 성소수자 이슈교육을 의무화했다. 무엇이든 교육이 중요한데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이야.

**빨강** ▶ 나는 YWCA 안에 있을 성소수자들이 여기서만큼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보라** ▶ 너희가 성소수자에 대해 마음이 열린 것 같아서 나도 기쁘다! 



김기석 청파교회 목사가 '젊은이야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다.

**김은영**

한국YWCA연합회 국제협력 간사

세계YWCA와 세계YMCA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918년 11월 11일을 기념해 1주일간을 평화를 위한 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해마다 연합예배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선한 세상을 위한 청년운동'을 주제로 11월 11일(일)부터 17일(일)까지 기도주간을 운영했다.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은 서울YWCA가 11월 12일(월) 서울YWCA 대강당에서 주관한 연합예배에 100여명이 참석해 친선을 다졌다. 김기석 청파교회 목사의 설교 '젊은이야 일어나라'를 요약해 실는다.

**공감을 잃은 세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세상을 떠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점점 더 포악해지고, 삶의 방향과 설 땅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살아야 할 지, 죽을 지를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인간이 세상에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마지막 인간을 '영혼이 없는 전문가'로 상징하며 삶의 정체성과 의미를 더 이상 묻지 않고, 타자의 고통 앞에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우매한 모습의 인간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은 공감 능력으로 '자신'이란 집착에서 벗어나 '우리'란 공동체의 세계로 진입했고, '타자'로 규정되는 사람에게까지 도달하면서 삶을 확장시키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시대에서 의미보다는 재미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다. 일본

에 거주하는 서경석 선생은 '교양'을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타자가 겪는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상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답게 된다는 것이다. 종교학적으로 접근하면 '나'라는 개인에서 '타자의 세계'로 넘어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당도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한다. 이 시대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보편적 전통의 와해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믿음의 붕괴일 것이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을 퇴각한 삶으로 몰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은 "꿈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정규직"이라고 답한다. 우리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만 해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당당히 외치고, 역사를 변혁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힘들어지고, 연애·결혼·출산·양육은 물론 살 집을 마련하는



YWCA·YMCA 청년 간사들이 '우리는 평화가 되자' 특송을 부르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 참석자들이 '함께 나누는 기도'를 하고 있다.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졌기에 현대 젊은이들의 삶은 만만치 않다. 오늘날 청년들은 인류역사상 자기의 전 세대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최초의 세대에 살고 있다는 말에 큰 공감이 간다.

**하나님나라 운동은 저항이다**

가끔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관측에 들어있는 나인성과 과부의 죽은 아들을 상상하게 된다. 이 시대는 젊은이들을 너무 왜소하게 만들고, 무궁한 역동과 다양성이 담긴 영혼을 납작하게 만든다. 세계화라는 도박판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일부다. 다수는 패배자가 되어 분노를 품고 살고, 결국 그 분노는 자기파괴와 타자파괴 혹은 방관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 세상이 젊은이들에게서 빼앗아간 능력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란 사실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행복한 삶을 구성할 다른 방식이 얼마든지 있지만, 이미 규정해놓은 길 외에는 상상도 못하도록 젊은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의 과제는 다른 삶을 상상하고 삶을 재구성할 능력을 가진 젊은이를 배출하는 것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을 보면 환경에 수긍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식 창씨개명을 강요당한 처지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었기에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거룩한 충심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했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삶의 문법에 수긍하길 포기하고 자신만의 삶의 문법을 만드는 용기를 가진 청년들이었다. 네 명의 젊은이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하나님나라 청년들이다.

예수님의 하나님나라 운동은 이러한 저항이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 역시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세계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 반정립)로 등장하고 있다. 성서의 세계는 기존질서 속에서 수긍하며 살아가는 영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내수화시키는 능력에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청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항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로마제국의 언어인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언어인 삶, 나눔, 돌봄과 섬김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맞서 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YWCA와 YMCA에게 주어진 과제다.

연합예배 주제를 '선한 세상을 위한 청년운동'으로 정한 만큼 청년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두 단체의 상상력이 발동되길 바란다. 선한 사람들이 살기 쉽고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다.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못하는 시대에 YWCA와 YMCA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당연함이 당연한 사회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임희진**  
서울YWCA 대학·청년Y 회장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요즘은 페미니즘, 성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도 ‘유별나고 불편한 존재’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지요. 그럼에도 저는 감히 저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겠습니다.

미투운동은 제가 살아오며 경험한 차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행과 희롱, 차별,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지금이 ‘여성 상위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살해당하거나, 불법촬영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절마다 고된 노동동을 하거나, 독박육아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받고,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경력단절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제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직 그런 곳입니다.

외국여행을 하다 보면 캐주얼링을 당하기 일쑤이고, 어

떤 나라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기의 일부를 절단하는 할례를 당하거나, 혼전 성관계를 한 여성은 아버지로부터 돌로 머리를 맞아 살해당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 그런 곳입니다.

꽃처럼 예쁜 모습으로 분위기를 환하게 하거나, 덜 중요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삶, 남성들은 상상도 못할 불안을 경험하고, 부당한 차별도 묵묵히 견어내야 하는 삶, 저는 이러한 삶을 거부합니다.

주님은 여성과 남성을 당신의 형상대로, 평등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믿음이 당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미래의 청년들에게 더 살만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 이것은 YWCA와 YMCA가 함께 꾸는 꿈이라 믿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외침에 귀기울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평등한 사회를 물려주세요. 

## 우리가 만드는 한반도 평화 “남북청년들의 만남과 교류 중요”



**차민재**  
대학YMCA전국연맹 총무

우리는 4.27 판문점선언과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왔고 세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통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시민에 의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평화통일을 위한 행보는 모든 상황에서 서로를 향한 충구를 내리고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7년 이후 첫 정상회담이 있었으며, 이례적으로 한 해 동안 3차례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전쟁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남북의 전쟁종식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지난 70여년간 전쟁의 위협을 직접 느낀 우리는 항상 긴장상태와 전쟁이 끝나길 기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남북이 주체가 되는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 평화가 좌지우지됐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를 지키고 평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주인은 우리 민족이고, 한반도 평화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겨누는 충구를 내리고 있는 평화의 시작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남북간의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서로 대화가 없

으면 풀 수 없듯 남북간 문제도 꾸준한 대화와 이해관계 구축이 없다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꾸준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이어받고, 더 큰 평화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들의 개입 없이 남북 사이의 타협이 제일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확대해야 합니다. 통일 이후를 상상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은 여러 부분의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들만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안의 공통점을 발견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문화교류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확대하고, 서로를 공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이상 북한에 대해 동질감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세대에게는 가까이에서 느끼는 북한이 필요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남북단일팀이 가져다준 공동체 의식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바람이 되었듯, 더 가까워지는 남북은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반도를 지키며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참가자들이 '2018 YWCA 서부지역 회원대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곽수현**

목포YWCA 국장

YWCA 서부지역위원회는 10월 23일(화) 전주비움센터에서 '정의·평화공동체 성평등 실현으로!'를 주제로 YWCA 서부지역 회원대회를 열었다. 4년마다 진행되는 지역별 회원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회원대회다. 10개 YWCA(광양, 광주, 남원, 목포, 서귀포, 순천, 여수, 익산, 전주, 제주)와 군산직할지부 회원, 연합회 활동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여성운동의 중심 'YWCA'**

권경미 전주YWCA 회장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됐다. 인영희 남원YWCA 회장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YWCA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명자 여수YWCA 회장이 성경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을 대표로 읽었다.

이어 한국YWCA 소개 영상을 보며 96년의 역사와 활동을 되돌아봤다. 중점운동인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영상은 회원들이 YWCA의 가치와 목적을 한층 더 이해하게 도왔다.

Y아카데미위원회 위원인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의 “지역에서 왜 YWCA가 여성운동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이 이어졌다. 이숙진 교수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지방 인구 불균형이 지역 공동화 현상을 낳아 지방사회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

다고 분석했다. 특히 취업시장의 살인적 경쟁률을 비롯해 'N포세대'(여러가지를 포기하는 세대)와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사회)으로 표현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등의 문제는 젊은 여성들의 탈지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YWCA가 지역 청년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WCA가 96년의 오랜 역사 동안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힘쓴 것처럼 성평등 감수성이 '제로'인 정책들이 남발되는 가운데 지역여성운동 단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YWCA는 지방소멸과 청년여성의 탈지방화에 어떤 저항적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지역여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를 적극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성차별,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자**


참가자들은 전주비움센터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회원한마당 축제를 시작했다. 서부지역 10개 YWCA 회장과 사무총장, 군산직할지부 운영위원장이 기를 들고 입장하며 축제의 막이 올랐다.

서부지역위원장인 민혜원 광주YWCA 회장이 “YWCA 정신을 나누고 한마음으로 연합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정의·평화공동체가 되기를 염원”하며 개회를 선포했고,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5부 지역위원회 회원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서부지역 회원대회를 통해 YWCA 운동을 알리며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양상민 한국놀이문화아카데미 원장의 진행으로 참가자들이 팀별로 나뉘어 대형 풍선공 굴리기, 인간볼링, 벨크로 테이프가 붙은 바지에 공 붙이기 등 신나는 게임이 이어졌다. 서로를 응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회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포크댄스도 추며 중심으로 돌아간 회원들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김양임 광양YWCA 회장, 이미순 군산직할지부 운영위원장, 박연국 익산YWCA 회장, 장세순 순천YWCA 부회장이 회원대표로 '2018 YWCA 서부지역 회원대회 결의문'을 낭독했다. 회원들은 정의·평화 공동체와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차별,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며 성평등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여성노동의 가치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포했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서로 돌보는 정의사회, 평화로운 사회,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공생하는 생명사회가 실현되기를 소망했다. 김선숙 순천YWCA 회장이 폐회기도를 맡았고, 전체 회원들이 손을 맞잡고 YWCA 회가를 한목소리로 부르며 회원대회를 마쳤다. 



이숙진 교수가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YWCA 깃발 입장으로 개회식 막이 올랐다.



회원들이 대형 풍선공 굴리기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천YWCA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조춘복 직전회장과 정경숙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을 비롯한 증경회장단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춘복**

사천YWCA 직전회장

사천YWCA는 10월 4일(목)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사천YWCA 회장단과 이사, 위원, 회원을 비롯해 실무활동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을 주제로 창립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특히 사천YWCA 30년 역사를 돌아보고자 10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이를 동안 활동기록을 담은 사진전시회도 펼쳤다.

**50만원짜리 사무실에서 출발**

1988년 열린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 전역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국민들이 온 마음을 모아 변화를 꿈꾸던 이때 7만 시민이 거주하는 삼천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기독교여성들은 삼천포YWCA를 창립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지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모르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장윤희 집사(현재 목사)는 출석하고 있던 삼천포제일교회 다락방에서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여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YWCA 창립을 준비했다. 창립을 염원하는 여성들의 열정은 8월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강렬했다. 간절한 기도는 삼천포YWCA 이사 23명이 구성되고, 회원 100명을 모집하는 결실을 가져왔다.

대한민국 남단 끝자락 바닷가에 둘러싸인 삼천포의 YWCA는 어린이 돌봄사업, 청소년상담실 운영,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등 우리 삶과 가까운 활동부터 시작했다. 특히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삼천포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며 여성들을 참여시켰다. 당시 YWCA가 자원절약을 위한 최초의 재활용운동인 '아나바다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쳤는데, YWCA 장날과 함께 바른 소비생활 문화의 정석으로 지금까지 회자될 만큼 큰 영향을 주었다.

1995년 시·군 통합정책으로 삼천포시는 사천읍과 통합되었고, 지금의 사천YWCA로 이름이 바뀌었다. 더욱 활발해진 사천YWCA는 꿈샘지역아동센터, 청소년여울마당,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생명숲돌봄센터,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등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에 앞장섰다.

전세금 50만원의 작은 사무실로 출발해 30년의 사천YWCA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다. 현재는 건물 2-3층에 전세를 들어 사천YWCA를 운영하고 있다. 넉넉지 않은 현실에도 필요한 때에 따라서 간섭하시고, 일꾼을 세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기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로운 역사를 남길 수 있게**

성경 하박국 3장 17-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사천YWCA 모두의 고백이기에 앞으로 사천YWCA의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뤄나가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갈망한다.

짧지 않은 세월을 함께한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와 헌신한 많은 이들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드린 기도가 오늘 사천YWCA의 기둥이 되었다. 특히 창립을 주도한 장윤희 목사, 실무활동가 안미옥 선교사(간사와 총무 역임) 등 사천YWCA에서 활동하다가 목회자가 된 분들은 우리의 큰 기쁨과 자랑이다.

30년의 짧지 않은 역사 속에 사천YWCA의 시작을 이끄는 어려운 역할을 감당한 이들의 지난 노고를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선배들의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온 마음을 다해 자신들을 위하기보다 사천YWCA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눈물로 헌신하며 개인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YWCA에 내어드린 고귀한 일을 우리는 30년의 시점에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 50년, 그리고 100년의 사천YWCA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간구하는 YWCA 사람들이 되고자 다짐해본다. 또한 지금 기독교여성단체로서 YWCA가 추구하는 섬김, 나눔, 생명살림운동의 그 중심에 사천YWCA가 우뚝 서서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한다.



1988년 11월 사천YWCA 창립 기념예배가 열렸다.



2000년 5월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2018년 10월 4일 사천YWCA 창립30주년 기념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우리들의 발자취가 참으로 정의롭고 아름다워서 세대가 변해도 비추어 돌아보기에 부족하지 않은 거울이 되는 그런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소원하고 다짐한다.

30주년 사진전 준비를 도우며 귀한 역사자료를 제공해준 김무순 초대회장, 주명자 증경회장, 김분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한다. 또한 늘 사천YWCA를 위해 고생하시는 정경숙 회장, 강류안 사무총장, 이사, 실무활동가들과 축하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YWCA



청소년 세계지갑여행 참가자들이 지갑여행을 시작하며 모자를 공중에 던지고 있다.

이지윤

한국YWCA연합회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간사

경기도 지역 초·중학교 청소년과 경제교육 전문강사로 구성된 멘토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세계지갑여행'이 10월 27일(토)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 여행을 계획하며 경제를 배운다

우리는 여행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쇼핑, 관광, 음식 등 하고 싶은 것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에 맞춰 계획을 세운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좋은 여행이 되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는 여행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해 한국YWCA연합회가 운영하는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경기·인천 지역)는 한국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가상의 외국 친구들을 위해 1일 코엑스 여행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경제 캠프 '청소년 세계지갑여행'을 10월 27일(토) 코엑스에서 열었다. 수도권지역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전문강사

로 구성된 10명의 멘토단이 현장지도를 맡았다.

청소년 세계지갑여행은 강의실 위주의 이론교육을 벗어나 직접 계획하고 체험해보는 맞춤형 경제교육으로 글로벌경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기념품 등을 구매하며 실제 여행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행사장에 도착해 코엑스 사전 답사여행에 필요한 티켓으로 된 이름표와 지도, 여권처럼 생긴 자료집과 기념품 가방을 받았다.

여행을 떠나기 전 사전모임으로 글로벌 언어공유 어플리케이션 '직톡'의 심범석 대표가 '글로벌경제와 타국 언어 습득' 강의로 수입, 지출, 예산 계획을 쉽게 설명했다. 청소년들은 조별로 코엑스 지도를 참고해 미션을 수행했다. 해외경험이 없는 미국 학생 1명, 사막지역에서 온 기

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중국 4인 가족, K팝에 관심 많은 일본 학생 2명, 작가와 발명가가 꿈인 이탈리아 학생 2명, 한국 문화와 요리에 관심 많은 프랑스 학생 1명 등 다양한 국가와 사람, 스토리를 지닌 가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1일 코엑스 관광계획을 세워나갔다.

### 현장체험을 통해 배우는 경제캠프

참가자들이 관광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입, 지출, 예산, 환율에 대한 이해와 코엑스 명소(별마당도서관, 아쿠아리움, VR체험존, 브릭라이브, SM아미움, 코엑스 아트홀 등)와 식당, 쇼핑물 등의 가격정보가 필요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온 이유와 한국에서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등 사전정보도 중요했다.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가자들은 코엑스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맛보고, 기념품을 사면서 가격정보를 취재했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터뷰했다. 한국 물가와 문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외국인들에게 직접 묻고 들었다. 책상 위 공부라 아니라 다채로운 활동을 체험하는 현장 학습이 되었다.

순탄치 않은 경험도 했다. 서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서 어떤 조원은 예쁜 모양의 굿즈 쇼핑을 추천했고, 또 다른 조원은 맛있는 식당을 추천했다. 제한된 예산과 시간 안에 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미션 속 인물의 스토리를 되짚으며 토론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참가자들은 답사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작성하고, 동영상과 PPT, 블록 등을 활용해 여행테마 작품을 만들었다. 아이패드를 활용해 현장답사 모습을 동영상에 생생하게 담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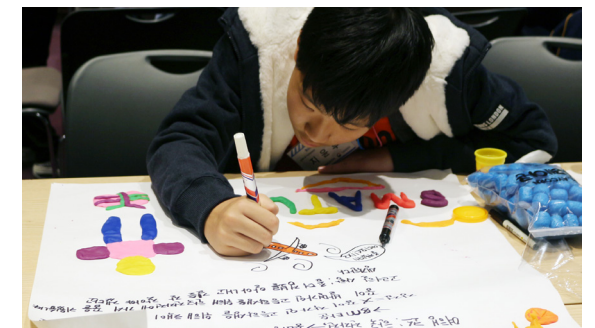
프로그램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경제용어를 배워서 좋았고, 앞으로는 용돈을 받으면 예산계획을 세워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코엑스를 직접 탐방한 활동에 만족도가 높았다. 초등학교 6학년인 강예은 학생은 "지도 를 들고 코엑스를 다니며 외국인들을 인터뷰하고, K팝에



참가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인터뷰하고 있다.




코엑스 지도를 보며 현장을 탐방하고 있는 청소년



자신이 원하는 여행테마 작품을 만들고 있다.

관심 많은 일본 여학생을 위해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밌었어요. 수입, 지출이라는 용어는 알고 있어도 예산을 세워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앞으로 용돈을 쓸 때도 미리 계획해서 쓰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신의 생활로 돌아간 청소년들이 현실 속 '지갑여행'을 할 때 이번 '청소년 세계지갑여행' 경험을 기억한다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YWCA 100주년, 백두산 천지에서 맞길

연수 둘째 날 오른 백두산에서 선명한 천지를 만났다.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감격했다.

백보람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담당 간사

201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단체 실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북·중 접경지역 평화역사 연수'라는 주제로 10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3박4일 동안 중국 연길과 백두산 등에서 열렸다. 민화협과 회원단체 실무자 등 15명이 참가했다. 백보람 평화통일담당 간사의 연수 참가기를 싣는다.

### 미리 가보는 '백두산 여성평화순례'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올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단체 실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장소가 백두산과 북·중 접경지역으로 선정됐다. 평화·통일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실무자들도 기대가 높았다. 마침 YWCA는 9월 30일(일)부터 10월 2일(화)까지 지리산 일대와 광주에서 '2018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을 마친 직후였다.

특히 이번 여성평화순례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 확산을 위해 한국과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중국, 미국 재외동포들도 모였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9월 20일 백두산을 오른 것에 가슴 벅차 있었다. 지금 같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이어져 YWCA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2년엔 백두산에서 여성평화순례를 하자고 염원했던 터라 연수참가 감회가 남달랐다. 마치 100

주년 백두산 여성평화순례를 미리 경험해보는 듯했다.

첫째 날 연길공항에 도착해 재중동포 가이드와 함께 일정을 시작했다. 연길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이자 80만명의 재중동포가 살고 있는 중국 최대 한인지역이다. 이곳의 첫 일정은 연변박물관 방문이었다. 고대와 근현대 문물, 조선족 민속문물, 발해 유물 등이 전시된 연변 박물관에는 중국 조선족의 삶을 보여주는 조선족 민속실도 마련되어 있다. '조선족 혁명투쟁사 전시'라는 이름으로 처음 중국에 이주해 도시개발과 건설, 제국주의 반대 투쟁과 항일운동, 해방운동에 적극 투신한 조선족 역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차량으로 4시간 이동해 백두산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이도백하에 닿았다. 도착하자마자 '한·중·북 교류협력에서 변경문화적 소통'을 주제로 평화특강이 진행되었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학회연구

소 연구위원이 동북아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다문화 개념을 넘어 남북의 만남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변화와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곳이었다.

### 천지의 감격, 항일운동의 감동


이튿날 연수의 하이라이트인 백두산 탐방이 진행되었다. 안개가 시야를 가리는 날이 많아 1년에 45일 정도만 볼 수 있는 백두산 천지로 출발했다. 버스로 굽어진 길을 40여분 이동한 뒤 언덕을 따라 이어지는 1,442개 계단을 오르는 서파 코스였다. 백두산은 이미 한겨울이었다. 눈이 뒤덮인 풍경을 지나 정상에 오르니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지가 펼쳐졌다.

시야에 걸리는 어떤 것도 없이 선명하고 깨끗한 천지를 보며 모두 그 경관에 감격하고 감동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면서 북한과 중국에 걸쳐 있는 백두산. 이번엔 중국을 통해 올랐지만 한반도 북한을 통해 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2022 YWCA 여성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산편'은 꼭 북한을 통해 땅길로 올라 남과 북, 해외 한민족 여성들이 함께 평화순례를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마음을 천지에 전했다.

셋째 날은 용정으로 이동해 대성중학교 옛터(용정중학교), 명동학교, 윤동주 생가 등을 찾아 평화역사 탐방

을 했다. 1908년 세운 민족교육기관 명동학교가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의 요람으로 윤동주, 문익환 선생 등을 배출했다는 사실이 더욱 뜻깊게 다가왔다. 격동의 역사 속 선구자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인물들의 정신이 깃든 곳에서 느끼는 감동은 백두산 천지를 마주했을 때와는 또다른 차원의 뜨거움이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며 활동가로 일하는데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다.

저녁 즈음 도문으로 이동해 국경지대에 도착했다. 두 만강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은 북한이었고 우리가 서있는 곳은 중국이었다. 건물 몇 개에 불과한 북한의 모습이었지만 모두 눈에 담고자 했다. '전방은 조선이다' 문구와 함께 우리 앞을 가로막은 철조망을 보면서 어쩌면 남북 사이에는 물리적 거리보다 더 크고 깊은 장애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신뢰일 텐데, 우리는 오랜 세월 마음 한 칸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며 각자 소감을 나누었다. 한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했고, 우리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는 남북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까워져야 한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결국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4월 27일 남북 정상이 70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한걸음에 넘는 것처럼.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의 요람이었던 명동학교 옛터 기념관



참가자들이 도문 국경지대에서 북한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울산YWCA 연합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

권한별

울산YWCA 간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위원과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회원을 기반으로 하는 YWCA의 이런 고민은 오늘도 계속되는 가운데 울산YWCA가 위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색다른 실험을 시도해 주목을 끈다. 한달한시에 모든 위원들이 모여 '연합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는 것. 위원회가 돌아가며 주관하는 공동위원회 현장을 소개한다.

### 위원 스스로 만드는 '공동위원회'

한 달에 한 번 울산YWCA에서는 특별한 동행이 펼쳐진다. 매달 셋째 주 월요일, 울산YWCA 5개 위원회 위원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여 '연합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매달 위원회별로 돌아가며 맡는데, 먼저 예배를 하고 각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뒤 한 장소에 모여 특별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마지막엔 주관 위원회가 준비한 따뜻하고 풍성한 점심을 나눈다. 연합 상임위원회는 회원위원회, 청소년과 대학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사업위원회, 합창단 등 5개 위원회가 참석하고 있다. 일정상 참석이 힘든 근로복지위원회와 출판홍보위원회는 개별로 개최한다.

특별 프로그램은 매달 강의, 체험 등의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다룬 '소확행의 인문학적 배경'을 주제로 최영송 부산KBS PD가 강의하기도 했고, 정윤선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소비자운동'을 강의했다. 주용자 한국상담심리협회 대표는 '인구교육'을 주제로 강의하는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함께 배운다. 꽃꽂이, EM제품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펼쳐져 호응이 높다. 체험활동의 경우 위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추천하고, 직접 강사로 나서서 재능을 나누는 어울림의 장이기도 하다.

'식탁교제'도 울산YWCA 공동위원회만의 특색이다. 이사와 위원들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탁교제의 경우 처음엔 이사들이 점심을 모두 준비했다. 그러다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반찬과 과일, 간식을 마련해오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준비한 음식으로 풍성한 점심을 나누고 있다.

울산YWCA의 이런 실험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위원들의 참여가 줄고, 회의를 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면서 고민이 시작됐다. 위원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세우는 시도가 필요했다.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놓고 많은 토

론을 했다. 올해부터 모든 위원회를 연합한 모임을 해보기로 했고, 주체적인 참여를 위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은경 울산YWCA 사무총장은 "위원들이 부서별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YWCA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신임위원의 날'이나 성탄예배에 전체가 겨우 모이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

그렇게 연합 상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2018년 2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 통과와 함께 바로 2월부터 함께 모이는 위원회로 바뀌었다. 위원들의 저조한 참여율도 높이고 활동 전반과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울산YWCA만의 플랫폼 '연합 상임위원회'가 탄생한 것이다.

### 회원운동체를 회복하다

'연합 상임위원회'는 시작과 동시에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회의 참석률이 대폭 높아졌다. YWCA에 봉사하는 동역자들의 '만남의 장'이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신임위원 발굴이라는 중요한 성과도 있었다. 11월 위원회 참석자 35명 중 신임 위원은 8명이었다.

서정순 울산YWCA 회장은 "그동안 위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아쉬웠다"면서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줄고 있는데 연합 상임위원회를 통해




연합 상임위원회는 야외에서도 열린다.

YWCA 활동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동역자를 확인하게 되어 즐겁다"고 말했다.

울산YWCA 강당에 세워져 있는 '당신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문구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서 회장은 "회원증모를 다짐하는 구호이자 YWCA 활동에서 회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인데 새로운 위원들이 늘어나면서 회원운동체로서 YWCA가 움직이고 있음을 모두 함께 느끼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여성운동으로서 YWCA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규모와 열정은 매우 중요하다. YWCA 활동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사명을 결단하는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이유다. 위원들이 수동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논의하며 YWCA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연합 상임위원회는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변화를 만들 예정이다. 같은 형태로 계속 될지,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이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바뀌지 않는 건 새롭게 시도한 연합 상임위원회가 실무자 중심의 운동방식이 아닌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여 지역의 삶을 더 온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란 희망이다.

울산YWCA는 위원들의 동참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사람을 찾고, 만나고, 세우는 일에 계속 힘쓰고자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YWCA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위원들을 찾아 나서는 울산YWCA의 내일을 더 기대해 본다. 



위원들이 꽃꽂이 활동 후에 사진을 찍고 있다.

# 가장 완벽한 성폭력 대처는 '예방'

김은선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상임연구원

## 교단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복음은 여성들에게 빛이고 생명이였다. 여성교회 121년 역사에서 여성 성도들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몸과 물질, 시간을 들여 헌신 봉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가 11월 22일 열린 제50회 총회에서 채택한 ‘성폭력 없는 감리교회를 만들라’의 첫 구절이다.

여성교회는 “선교에만 전념하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때까지 교단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수차례 교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전모 목사가 10월 2일 감리회 감독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감리교여성연대를 비롯해 사안의 심각성을 통감하는 이들이 출마반대, 취임반대 시위를 하며 총회 이·취임식까지 막았지만, 전모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 단독으로 취임식을 거행하며 지금도 감독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회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성평등한 문화 만들기에 나선 이들은 일찍부터 있었다. 1999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여성관련 교회지침 <여성과 함께하는 교회>를 채택해 교회의 성차별을 관행, 언어, 여성참여 측면에서 살펴보고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도모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015년 제100차 총회를 맞아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과 함께하는 교회>를 다듬어 <성평등을 위한 교회 지침서-생명다리 이어가기>로 발간했다.

교회 성폭력에 좀더 집중한 교재는 2005년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에서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기독교여성상담소가 문을 열고 8년 동안 100여 건 이상의 교회 성폭력 사건을 다루며 예방과 교육홍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 발간했다고 한다.

## '미투'로 본격화된 '처치투'

2016년 10월 SNS에서 시작된 성폭력 고발운동과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사건 폭로를 계기로 촉발된 '미투운동'에 힘입어 기독교계에서도 교회 내 성폭력 고발운동인 '처치투(ChurchToo)' 바람이 불었다. 달라진 사회 분위기는 그간 명맥을 이어온 교회 성폭력 예방운동이 더욱 주목받고 퍼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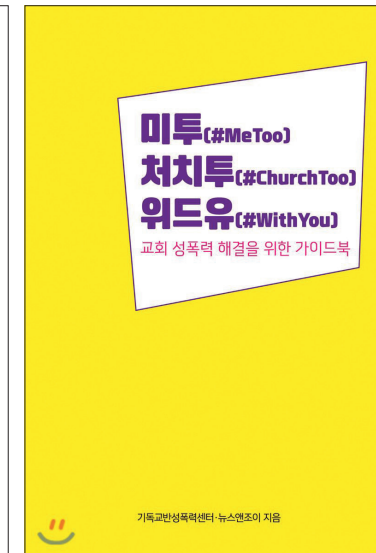
2018년 한해만 해도 세 권의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출간되었다.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기독교여성상담소), <교회 성폭력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 '미투 처치투 위드유'>(기독교반성폭력센터&뉴스앤조이),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먼저 <미투 처치투 위드유(#MeToo #ChurchToo #WithYou)>는 성폭력과 교회 성폭력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교회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3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또 가해자일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리적, 법적, 절차적인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부분에서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관련 규정 제정, 교단과 교회 내 성폭력 전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기독교여성상담소 / 5,000원



미투 처치투 위드유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뉴스앤조이 / 8,000원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 비매품

담기구 설치와 성평등 문화 정착을 대안으로 제안했는데 가이드북 특징을 가장 잘 담아낸 대목이다. 특히 교회 내 문화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는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 역할에 분량을 할애했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 영향력이 크고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목회자가 스스로를 경계하고 더 엄격히 수련할 것을 요구했다.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참회와 결단'에서는 성폭력을 하나님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참회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 교회 성폭력에 대한 안내와 예방, 대처 이외에도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워크숍 '하나님 가라사대 Me Too'에서 공동작업한 교회 성폭력 대처 매뉴얼을 부록으로 실었다.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는 기독교여성상담소가 교회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축적한 사례가 풍성하게 담겼다. 신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성서오용의 예와 올바른 해석,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이후 목회자들이 자신을 합리화 하는 말들을 포함해 목회자가

신학적, 영적 권위를 악용해 교인을 '그루밍'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담소에 접수된 목회자 성폭력 사례를 신고 피해자가 자주 묻는 Q&A(질의응답)를 넣어서 교회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도왔다.

## 성폭력에서 안전한 교회 공동체

성폭력 사건에 가장 완벽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예방이다.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서로의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만나듯 상대를 존중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피해자에게 침묵과 용서를 강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도가 아니라 가해자 행동에 집중하며 사건을 드러내고,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의 회복에 힘써야 한다. 한국 교회에 아직 드러나지 못한 사건과 아픔이 많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한 성폭력에서 안전한 교회 공동체 구현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 연합회 소식

### 월례아침기도회



월례아침기도회가 국제협력위원회 주관으로 11월 1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국제협력위원회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특송을 불렀고, Y아카데미위원회 위원인 김신애 목사가 '결'을 주제로 설교했다.

###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TV프로그램상 시상식



11월 22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이 열렸다. 김주우 SBS 아나운서 사회로 한영수 연합회 회장의 인사말, 소개영상, 이종임 심사위원장의 경과 및 심사보고, 시상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수상자들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 실행위원, 위원을 비롯한 실무활동가 6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자세한 내용은 12~17쪽)

### 지속가능포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11월 1일(목) 제4차 YWCA 지속가능포럼이 '기후변화와 미

세먼지'를 주제로 열렸다. 권원태 전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현황을 발표했다. 연합회 실행위원을 비롯한 실무활동가, 대학·청년Y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자세한 내용은 18~19쪽)

### 청년기자단 4기 수료



청년기자단 4기 마지막 정기모임과 수료식이 11월 24일(토)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청년기자들은 올해 7월부터 시작한 활동소감을 나누며 평가했고, 라규영 전 스포츠뉴스 에디터의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영상 콘텐츠' 강의를 들었다. 수료식에서는 김은주 홍보출판위원장이 수료증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손지민 청년기자가 우수기자상을 받았다. 9명의 청년기자가 활동했다.

### 세계YWCA&YMCA 기도주간 연합예배



세계YWCA&YMCA 국제친선 기도주간 연합예배가 서울YWCA 주관으로 11월 12일(월)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선한 세상을 위한 청년운동'을 주제로 열린 예배에는 연합회를 비롯한 서울YWCA와 한국YMCA전국연맹 임원, 이사, 위원, 활동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석 청과교회 목사가 '젊은이야, 일어나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자세한 내용은 24~27쪽)

### YWCA 돌봄직종담당 실무자워크숍

2018년 YWCA 돌봄직종담당 실무자워크숍이 11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은영 돌봄과살림위원장이 '돌봄시장 변화와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표대중 돌봄과살림위원회 위원이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노무관리 변화'를, 전용옥 KB손해보험 배상보험담당자가 '돌봄업무 안전사고 발생 대처요령'을 각각 강의했다. 회원YWCA 돌봄직업훈련·알선 담당자 25여명이 참석했다.

###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연수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연수가 11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강릉탐스텐호텔에서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은실 연합회 정책기획국장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를 위한 YWCA 정체성과 중점운동 이해'를, 이은영 Y아카데미위원장이 'YWCA는 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동해 바닷길을 걸으며 재충전하고, 사회적기업 아트컴퍼니 해랑을 찾아 지역 젊은 예술인들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듣는 공동체활동도 진행했다.

### YWCA 어린이집 중견교사연수



2018 전국 YWCA 어린이집 중견교사 연수가 11월 2일

(금)부터 3일(토)까지 1박2일간 연합회 강당과 서울 일대에서 열렸다. 첫째 날에는 박은실 연합회 정책기획국장의 'YWCA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중견교사 역할' 강의에 이어 어린이집 생태교육 사례를 공유했고 문화탐방 활동을 했다. 둘째 날에는 6월 북유럽 해외연수 생태숲 현장 견학을 바탕으로 YWCA 어린이집의 기독교적 생태교육 실천방안을 협의했다. 16개 어린이집 중견교사와 원장 31명이 참석했다.

###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청소년 세계지갑여행'



기획재정부 지정으로 연합회가 운영 중인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세계지갑여행'이 10월 27일(토) 코엑스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은 한국 관광을 오는 가상의 외국친구를 위해 1일여행 예산계획을 세우고, 직접 코엑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터뷰하며 활동을 수행했다. 경기지역 초·중학교 청소년과 경제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 등 70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32~33쪽)

### 씽크잡스 드림쉽콘서트



시티재단이 후원하고 연합회가 운영하는 여성청소년 ICT(정보통신기술) 교육프로그램 씽크잡스의 한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드림쉽콘서트가 11월 16일(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다. 9개 YWCA(광주·논산·서울·성남·수원·여수·인천·전주·천안) 청소년들과 강사, 실무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사회공헌협의체 '브랜드소사이터티' 재능기부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교

## 연합회 소식

유희 게임앱 개발회사 와이드브레인 정혜원 대표의 특강, 우수 포트폴리오 수상자 발표와 토크콘서트, 스타트업 대표들의 멘토링으로 진행됐다.

### 소비자 모니터교육



2018 YWCA 소비자모니터 교육이 11월 7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양선희 서울YWCA 사무총장이 '모니터활동의 의의와 방법-YWCA 소비자운동의 역사를 중심으로'를, 권찬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연구원이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 이해'를, 임지은 씽크머니 전문강사가 '나의 경제생활 비건어게인-YWCA 씽크머니 에듀툴킷을 이용한 워크숍'을 주제로 강의했다. 회원YWCA 소비자모니터 상담원과 담당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한양대학교회 북한어린이돕기 성금 전달



한양대학교회가 연합회를 찾아 북한어린이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정성욱 한양대학교회 목사와 강주섭 한양대 교수는 11월 6일(화) 한양대학교회 성도들이 북한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모은 '사랑의 동전' 성금 200만원을 한영수 연합회 회장에게 전했다. 이번 성금은 북한어린이 분유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 신간 안내

### 2018 대림절 묵상집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5개 기독단체들이 2018 대림절 묵상집 <이사야서와 함께 성탄을 맞을 준비>를 펴냈다. 대림절 기간에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며 제1이사야서(1~39장)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자세를 되짚었다.

대한기독교서회 / 2,000원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김승아, 고세영, 곡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태, 김기동,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민,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관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경, 박일희, 박진화, 박효정, 배민기, 배정미, 배정민,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복희, 신명자, 신민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임세연, 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상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예식, 이남희, 이영애,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원, 이주영, 이진을, 이찬희, 이찬진, 이병자, 이혜연,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항욱, 장미란,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선, 최지연, 최현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종백	1,830,000
개인기부	임국미	270,000
회원YWCA	마산YWCA	204,000
어린이집	광주어린이집	592,40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약천명강교회, 하늘가족교회, 한양대여성교회	290,0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선교선우회	100,000
합계		3,286,400

###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회원YWCA 부속시설	춘천YWCA	150,000
개인	김형, 이재현, 김태연, 오미생	190,000
합계		340,000

## 회원YWCA 소식

### 경기

####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 창립 29주년 감사예배



고양YWCA는 29주년을 맞아 11월 2일(금)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진행했다. 진희근 승리교회 목사가 "사랑의 빛진 자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이사·위원·활동가들은 축하하는 덕담을 나누며 고양YWCA 역사와 함께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다.

#### 부천YWCA

김은아 팀장

####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아우회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은 10월 20일(토) 파주 감악산에서 조합원 가을 아우회를 진행했다. 조합원,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출렁다리 체험, 장터 체험을 비롯해 퀴즈, 게임 등 다양한 야외활동으로 단합의 시간을 보냈다.

#### 성남YWCA

김경진 간사

#### Y-틴 퀴즈캠페인

성남YWCA Y-틴 동아리 '역사탐험가' 청소년 24명은 10월 27일(토) 야탑역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퀴즈캠페인을 펼쳤다. Y-틴 활동을 알리면서 우리 역사를 올바



르게 인식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 수원YWCA

정혜진 주임

#### 제4회 수원팔색길 종주대회



수원YWCA는 11월 3일(토) 광고효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수원팔색길 중 여우길을 걷는 제4회 수원팔색길 종주대회를 진행했다. 3,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난타, 아주대 응원단 공연을 시작으로 팔색길 배지만들기, 천연 손세정제 만들기, 자연가습기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수원YWCA는 2015년부터 해마다 종주대회를 열고 있다.

#### 안산YWCA

문성은 주임

#### 성평등정책 캠페인



## 회원YWCA 소식

안산YWCA는 10월 27일(토) 안산문화광장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성평등정책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성인지 예산 활성화를 위해 '성인지 관점으로 본 주민참여 예산 제도' 개념과 필요성, 생활 속 성인지 정책 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정책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인지 예산과 정책이 정착되길 기대한다.

### 안양YWCA

홍미영 간사

#### 큰장날



10월 17일(수)부터 18일(목)까지 안양평생교육센터 앞 광장에서 큰장날을 열었다. 안양YWCA 본부와 부속기관들은 생활용품, 직접 만든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판매했다. 기획재정부 특별물가조사사업으로 안양YWCA가 주관한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를 알리고,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소비를 홍보하기 위한 시식 캠페인도 함께 벌여 큰장날을 빛내주었다.

###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 잡(job)다(多)한 페스티벌



의정부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의정부시, 경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의정부다문화지원센터와 함께 10월 26일(금) 플로렌스파티하우스 의정부점에서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박람회 '잡(job)

다(多)한 페스티벌'을 열었다.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성평등 퍼포먼스 샌드아트 공연과 노동법 특강 외에 구직상담, 지문 적성검사, 온라인 면접, 이력서 촬영 등으로 취업 지원을 도왔다.

### 하남YWCA

김상미 간사

#### 환경나눔장터



하남YWCA는 10월 27일(토) 하남시청 농구장에서 청소년봉사자, 자원봉사자,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나눔장터를 열었다. 중고물품 기부와 판매, 캘리그라피 체험으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재사용 문화와 환경보호 의식을 높였다. 또한 방사능 물질로 인한 피해사례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탈핵생명 캠페인도 함께 벌였다.

## 동부

### 김해YWCA

배정숙 부장

####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김해YWCA가 운영하는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11월 7일(수)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47개 업체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재 가노인복지센터, 태영이엔지와 협약을 맺었으며 선일엠텍과 서림정공에 우수기업 감사패를 수여했다. 협약으로

도움받은 기업과 취업자 사례도 발표됐다. 2009년 시작된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에는 올해로 331개 업체가 참여했다.

### 대구YWCA

배민희 간사

#### 카부츠데이



대구YWCA는 '가족사랑 더하기 나눔은 희망'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10월 20일(토) 대구어린이회관에서 카부츠데이를 열었다. 자동차 트렁크를 판매대로 삼아 물건을 사고파는 카부츠(Car Boots)는 유럽형 벼룩시장 플리마켓으로 참가가족들은 가정에서 정리한 물품을 사고팔면서 서로 소통하고 자녀들은 놀이처럼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수익금은 대구YWCA 착한치과(저소득층 후원치과)에 기부된다.

### 마산YWCA

김주옥 부장

#### 양성평등 가족워크숍



마산YWCA는 10월 26일(금)부터 27(토)까지 1박2일간 통영RCE세아트라스에서 열 다섯가족이 참여한 '차별없이 고르고 한결같은(차.고.한) Family' 양성평등 가족워크숍을 진행했다. 의사소통과 공동체 작업으로 가족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면서 양성평등의 조화로운 모습을 가족 안에서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 부산YWCA

김예은 간사

#### 이사·위원 연수



부산YWCA는 10월 30일(화) 양산 스페이스나무에서 이사·위원 연수를 열었다. 조봉자 제1부회장의 예비인도로 시작된 연수는 중점운동강의 '탈핵! 팩트체크', 산채과 갤러리 감상, 레크리에이션, 몸과 마음의 힐링 '차운 명상'으로 진행됐다. 이사,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도 부산YWCA를 위해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 양산YWCA

정은정 간사

#### '우리 아빠는 셰프' 요리경연대회



양산YWCA는 10월 27일(토)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제6회 '우리 아빠는 셰프' 요리경연대회를 열었다. 열 다섯명의 아빠들이 응원을 받으며 출품요리 2가지를 만들어 경연했고, 레크리에이션으로 가족이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마늘보쌈, 해물짬뽕 순두부찌개를 선보인 제상훈씨가 대상을 받았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한 '우리 아빠는 셰프'는 해마다 열리고 있다.

### 울산YWCA

김다혜 간사

#### 신임실무자 교육

2018 신임실무자 교육이 11월 6일(화) 울산YWCA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성주향 초대회장의 한국YWCA 역사이해

## 회원YWCA 소식



를 시작으로 김금자 증경회장의 YWCA 목적이해, 서정순 회장의 회원증모운동 강의로 이어졌다. 울산YWCA 본부와 부속시설 활동가 15명이 참석해 활동가로서 사명과 비전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다.

### 진주YWCA

김태진 팀장

#### 여성주의 역사문화기행



진주YWCA는 10월 24(수)부터 25일(목)까지 1박2일간 지역 여성활동가 23명과 함께 광주지역 역사문화기행 'Herstory 발자취를 따라서'를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광주교대 다문화교육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광주박물관을 둘러보았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를 문화예술로 승화해 광주의 역사성과 민주, 인권, 평화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광주비엔날레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 창원YWCA

김진아 간사

#### 2018 회원대회



10월 23일(화) 창원과 진해가 만나는 '안민고개 만남의 광장'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회원대회를 열었다. 1부에서는 YWCA 운동을 접목해 미션을 수행하는 산행과 장기자랑을 진행했고, 2부에서는 토크콘서트(정책제안, 양성평등, 청소년, 평화통일, 환경, 탈핵)로 YWCA 운동방향을 제안했다. 회원들과 YWCA 정책, 운동을 나누는 회원대회는 해마다 가을에 열리고 있다.

### 포항YWCA

이유정 간사

#### 애들아! 밥먹자



포항YWCA는 10월 30일(화) 포항대동고, 포항중앙고, 포항예술고 정문 앞에서 아침밥먹기 캠페인 '애들아! 밥먹자'를 진행했다. 세 개 학교 2,200여명에게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나눔으로써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대화의 시간과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습관을 권장했다.

## 북부

### 동해YWCA

정미숙 팀장

#### 중학생 진로콘서트



동해YWCA가 운영하는 동해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11월 7일(수) 동해시평생학습관에서 5개 중학교 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각은 단순하게, 행동은 책임감 있게'라는 주제로 <서울대 꼴찌> 저자 이성빈씨를 초청해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풀어냈다. 진로카드 작성을 비롯해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넣은 손수건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됐다.

### 서울YWCA

성희희 간사

#### 96주년 기념 '회원을 위한 아침식탁'



서울YWCA는 96주년을 맞아 10월 30일(화) 대강당에서 '서울YWCA 회원을 위한 아침식탁'을 열었다.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아침식탁에는 3년 이상 후원하고 있는 회원과 신규 평생회원이 초대됐다. 80여명이 참석해 따뜻한 아침밥상을 나누고 서울YWCA 100년을 향한 비전을 나눴다.

### 속초YWCA

주미란 간사

#### 강원여성평화아카데미



속초YWCA는 10월 31일(수) 4층 교육장에서 강원여성평화아카데미를 진행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이 '평화변영 시대를 위한 북한 사회와 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북한 아나운서 출신의 정진화 통일연구원 강사가 '북한 여성들의 삶과 생활모습'을 강의했다.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인 강원여성평화아카데미는 YWCA강원협의회(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와 강원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이다.

### 인천YWCA

유성은 간사

#### 성평등! 행복날개를 달아라

인천YWCA는 '성평등! 행복날개를 달아라'를 슬로건으로 10월 25일(목)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워라벨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일·생활 균형을 통한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하여 마련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조선희 인천시의원의 '다른 시선이 다른 내일을 만든다' 강의, 사례발표로 진



행되었다. 가야금, 플루트, 피아노 연주자로 구성된 여성 3인조 칼트리오(CAL TRIO)와 연수구 직장인밴드 캔스(CANS) 공연도 펼쳐졌다.

### 춘천YWCA

허현주 간사

#### 1일COFFEE&바자회



춘천YWCA는 10월 30일(화) 월든카페에서 '1일COFFEE&바자회'를 열어 EM제품, 것갈, 농산물, 기부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판매했다. 200여명이 참석해 YWCA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지역인사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되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춘천YWCA 재정과 돌보미 회원 자녀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쓰인다.

## 서부

### 광주YWCA

손유영 부장

#### 문화강좌 발표회

#### 2018년 광주YWCA 교육부 문화강좌 발표회



## 회원YWCA 소식

광주YWCA는 10월 30일(화) 대강당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강좌 발표회를 열었다. 한춤반, 노래교실, 장구반, 주부영어반 등 문화강좌를 대표하는 10개 팀이 출전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해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작은 문화축제의 장이 되었다.

**남원YWCA** 장신화 간사

**흥부제와 함께하는 나눔장터**



남원YWCA는 10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지역축제 '흥부제'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아동·여성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이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장터를 열었다. 이사, 위원, 실무활동가들이 먹거리 장터와 흥부나눔 알뜰장터를 운영해 YWCA를 홍보하고 나눔정신을 실천했다.

**목포YWCA** 관수현 국장

**여성 일자리박람회**



목포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0월 23일(화)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전라남도와 목포시 후원으로 2018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열었다. 구인을 희망하는 212개 기업과 취·창업 준비하는 여성구직자 등 1,711명이 참여했다. 취업컨설팅관, 창업관, 4차산업혁명관으로 운영된

이번 박람회는 입사서류 컨설팅, 창업컨설팅, 취업특강, 2018 전남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비롯해 VR체험, 3D프린터체험, 드론체험 등이 제공됐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2018 평화아카데미 수료식**



서귀포YWCA는 6월 27일(수) 개강한 '2018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시 지역운영'을 10월 12일(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강좌와 함께 수료식을 진행했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가 '후쿠시마 다음은 한국이다, 한국은 왜 탈핵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평화아카데미는 매달 강좌를 진행해 7개 강좌와 해외 평화현장 탐방으로 운영됐다. '제주시 지역운영'을 주관한 제주YWCA는 9월 13일(목) 8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순천YWCA** 이귀선 부장

**이사 연수회**



순천YWCA는 11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연흥도에서 이사와 실무활동가 등 21명이 참석해 이사연수회를 진행했다. 고흥 분청박물관, 소록도 견학을 마치고 연흥도에 모인 참가자들은 YWCA 회원들의 평생운동이자 순천시 뜨거운 현안인 쓰레기문제에 대한 'YWCA와 자원순환운동'을 주제발표하고, 이사들의 재능기부 강의인 '자기 건강관리와 제조'로 알찬 시간을 보냈다.

**여수YWCA** 조은영 부장

**성인지적 관점의 대중교통 모니터링**



여수YWCA는 지난해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사업에 이어 올해도 '생활 속 양성평등,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제목으로 여수시 대중교통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정책 발굴을 위한 이번 활동은 버스정류장 40곳, 택시 승강장 10곳을 모니터링해 생활 속 불평등 문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11월 29일 양성평등보고회로 마무리된다.

**익산YWCA** 홍진 간사

**중·장년여성 건강주의보**



익산YWCA는 9월부터 11월까지 여성의 신체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영양과 식사지침, 운동요법을 통한 갱년기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중·장년여성 건강주의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식이요법 2회, 운동요법 20회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도시 조성사업의 '건강한 익산 만들기'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돼 호평을 받았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회원과 함께 '숲길을 걸어요'**

전주YWCA 회원부는 10월 25일(목) 경남 함양삼림숲으로 회원 40명과 함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숲길을 걸어



요' 가을 힐링여행을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추억의 보물찾기와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을 편지를 써보는 'Y우체국'을 진행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제주YWCA** 현나희 팀장

**청년Dream 취업박람회**



제주YWCA 청년일자리지원센터는 제주도와 함께 10월 30일(화) 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2018 청년Dream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도내 79개 기업이 청년 180여명을 선발하기 위해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9개 기관·기업이 구직상담을 진행했다. 6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354명이 면접에 참여해 99명이 1차면접을 통과했고, 앞으로 심층면접 등을 통해 채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후원의 밤**

2018 논산YWCA 후원의 밤 행사가 10월 23일(화) 논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시민,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오프닝공연으로 생명숲돌봄센터 아이들의 감직한 울동과 다문화수퍼맘의 필리핀 전통춤인 대나무춤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2부 콘서트는 영화 '파파로티' 실제 주인공인 성악가 김호중씨가 인

## 회원YWCA 소식



생 스토리와 노래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수익금은 청소년장학금과 시민운동 기금으로 쓰인다.

### 대전YWCA

안소진 간사

#### 창립 70주년 화보집 발간 기념식



대전YWCA는 창립 70주년 화보집 발간을 기념해 10월 29일(월) 유성호텔에서 기념식과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20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을 주제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 공연과 혼성중창 공연, 70주년 동영상 상영, 샌드아트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 세종YWCA

김영옥 간사

#### 어린이 친환경소비 인형극



10월 23일(화) 세종YWCA 어린이집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친환경소비 인형극을 진행했다. 세종시 친환경생활지

원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환경교육 인형극을 통해 아동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들이 흥미와 집중력을 갖도록 인형극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으며, 미래를 위한 친환경소비 생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제천YWCA

김미경 팀장

#### 꿈나눔 바자회



제천YWCA는 11월 2일(금) 시민회관 광장에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꿈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YWCA 회원들이 직접 만든 먹거리와 지역 농산물, 건어물, EM용품, 의류, 패션잡화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바자회로 덕산면, 화산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알렸으며 수익금은 돌봄센터 운영에 쓰인다.

### 천안YWCA

강규희 부장

#### 지역 청년정책 토론회



천안YWCA는 10월 24일(수) 다목적카페 '청년희망세상'에서 청년 20여명, 천안시와 관계기관 청년·일자리 담당자, 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 청년정책 바로알기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청년의 일자리, 창업 지원, 주거와 학자금지원 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17년 청년운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청년자립지원 공간마련을 위해 콘서트를 연 천안YWCA는 수익금 일부로 청년희망세상을 개소하고, 윈·더·풀(원하는 지역사회 더불어 풀어가세) 청년희망세상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 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 청년을 위한 응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 장학금 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 문의

전화 02-774-9707(장학위원회)

**Y-틴, 대학·청년Y**  
우리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YWCA** 한국YWCA연합회